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보고서

2017. 9. 15.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장학위원회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는 2016년 창과 70주년을 맞아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자체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모금 편지를 보내드리면서 향후 10년 동안 연 3,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3억원 규모 장학기금 조성을 1차 목표로 설정하였고, 지금까지 학과 전현직 교수와 졸업생 여러분의 뜨거운 정성과 참여로 이 목표를 거의 달성하여 희망한 대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과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기금의 조성 경위와 장학금 지급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일어난 주요한 일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6. 2. 국어국문학과 교수회의에서 학과 장학기금 조성 발의.

2016. 3. 고려대학교 기부금 계정에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장학기금” 신설.
(기존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발전기금” 계정은 그대로 유지)

2016. 4. 현직 교수들이 총 2,500만원의 장학기금 기부. 2016년 입금된 학과 발전기금 중 511만원을 장학기금으로 이관하여 약 3,000만원의 장학기금 적립.

2016. 6. 향후 10년 동안 연 3,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3억원 규모 장학기금 조성을 목표로 모금활동 홍보 시작.

2016. 8. 학생회에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 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

2016. 9. 국어국문학과 교수회의에서 학과 장학위원회 정관 확정 및 제1기 장학위원회 구성. 학과 장학위원회 주관으로 2016년도 장학생 모집 및 선발.

2016. 10. 국문인의 밤에서 2016년도 장학증서 수여(수혜자 16명, 수혜액 총 2,050만원)

2017. 3. 퇴임하신 고 인권환 선생님 유가족께서 학과 장학기금으로 1억원 기부.

2017. 9. 학과 장학위원회 주관으로 2017년도 장학생 모집 및 선발 진행 중.
(수혜자 미정, 수혜액 총 3,000만원)

※ 2017년 9월 현재 장학기금 공식 약정액(누적) 1억 9,799만 7,030원
비공식 약정액: 매년 86눈길장학금 1,000만원 및 교양교재 인세 수입 예상

창과 70주년이자 장학금 지급 첫해인 2016년에는 학과 장학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장학생 선발 기준을 크게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의 두 가지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신청을 받은 후 학과 장학위원회에서 ‘전체 수혜 학생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의 비율을 2/3 이상으로 한다’는 대원칙 하에 50여 명의 신청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13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1인당 150만원의 장학금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학과 창립 70주년 기념 학술/창작 공모전 당선자 3명의 장학금 포함 총 2,050만원을 장학기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장학기금의 규모가 1억원 이하일 가능성도 고려하여 여의치 않을 경우 기존 학과 발전기금(약 1억 2천만원)을 장학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첫해에 약 2,000만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첫 장학금을 지급한 2016년 10월 이후에 장학기금의 약정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한 익명의 기부자는 평생토록 매년 1,000만원씩 보내주시기로 하고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86눈길장학금’이라 불러달라고 하셨습니다. ‘86눈길장학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의 지원에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 3월에는 퇴임하신 고 인권환 선생님의 유족께서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1억원을 학과에 기부해주셨습니다. ‘인권환장학금’(가칭)은 앞으로 기부자의 뜻에 따라 학과의 인재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재직 교수들이 학과 발전기금에 기부해 온 교양교재 인세를 2017년부터 장학기금에 기부하기로 하여 장학기금의 확대에 도움이 예상됩니다.

기부자 중에는 80년대에 어엿사리 학교를 졸업한 선배가 자신처럼 고생하며 학업을 이어가는 후배를 위해 한 달에 1만원씩 10년 동안 보내주시기로 한 분도 계시고, 가정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학비를 버는 여학생 후배를 위해 써달라며 외국에서 5,000달러를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기부금을 약속해주신 모든 분의 사연을 이 자리에 적을 수 없어 아쉽습니다만, 우리 학과 장학기금의 성장에는 이처럼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커다란 마음을 내어주신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정성이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학과 장학위원회에서는 이처럼 장학기금 규모가 1차 목표로 삼은 3억원을 채우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올해부터는 애초 계획대로 연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2017년도 학과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 중이고, 9월 안에 장학위원회의 심사와 논의를 거쳐 장학생 명단과 개별 장학금액을 확정하는 다음, 10월 10일 국문인의 밤에서 장학증서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보내드린 모금 편지에서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학과 장학기금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최신 자료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2017년 8월 현재 국어국문학과 재학생 404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2명은 국가와 학교로부터 등록금 외에 매월 3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구소득분위 1분위(월소득 154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22명은 등록금만을 지원받습니다. 예컨대 이러한 22명의 학생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학업을 중단해야 할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2016년 2월 시작된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장학기금의 조성 경위와 장학금 지급에 대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장학기금에 지금까지 동참해 주신, 그리고 앞으로 동참해 주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